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통해 글로벌 SK에너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약 20여 년 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경영활동의 기본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기업의 경영철학을 담고 있는 SKMS(SK Management System)에서 기업의 목표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 창출과 사회/경제 발전 및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이와 같은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더 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2007년 10월말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으며 UNGC의 4대 중점 과제인 인권, 환경, 노동, 반부패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행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SK에너지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2007년 7월 기존 SK주식회사는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와 사업회사인 SK에너지로 분할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회사들의 독립된 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2007년 말에는 '회사 내 회사'를 의미하는 CIC (Company in Company)제도를 도입하여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글로벌 SK에너지로 도약할 수 있는 내부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SK에너지는 생산 및 사업활동에 있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기업의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2007년 도에도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오염물질 관리 등 다양한 환경경영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사내에 배출권 거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이사 | 회장 **최 태 원**

이해관계자의 행복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습니다

SK에너지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밑바탕에는 사회구성원의 신뢰와 지지가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에 SK에너지는 '자선'과 '참여'가 병행될 수 있는 활동을 사회공헌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마라톤을 통한 소외 이웃과의 행복 나눔, 태안 기름유출 방제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가 53,000시간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SK에너지는 2007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27조 7,884억원을 기록하였고, 이 중 52.4%인 14조 5,665억원을 수출로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15개국 27개 광구에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탐사 및 생산을 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총 보유 매장량이 5억 배럴에 이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현재까지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및 사회구성원 모두와 경제적 성과를 나누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3차 To-be기간(2008~2010년)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SK인천정유 합병, New FCC 안정 운영 등 2008년도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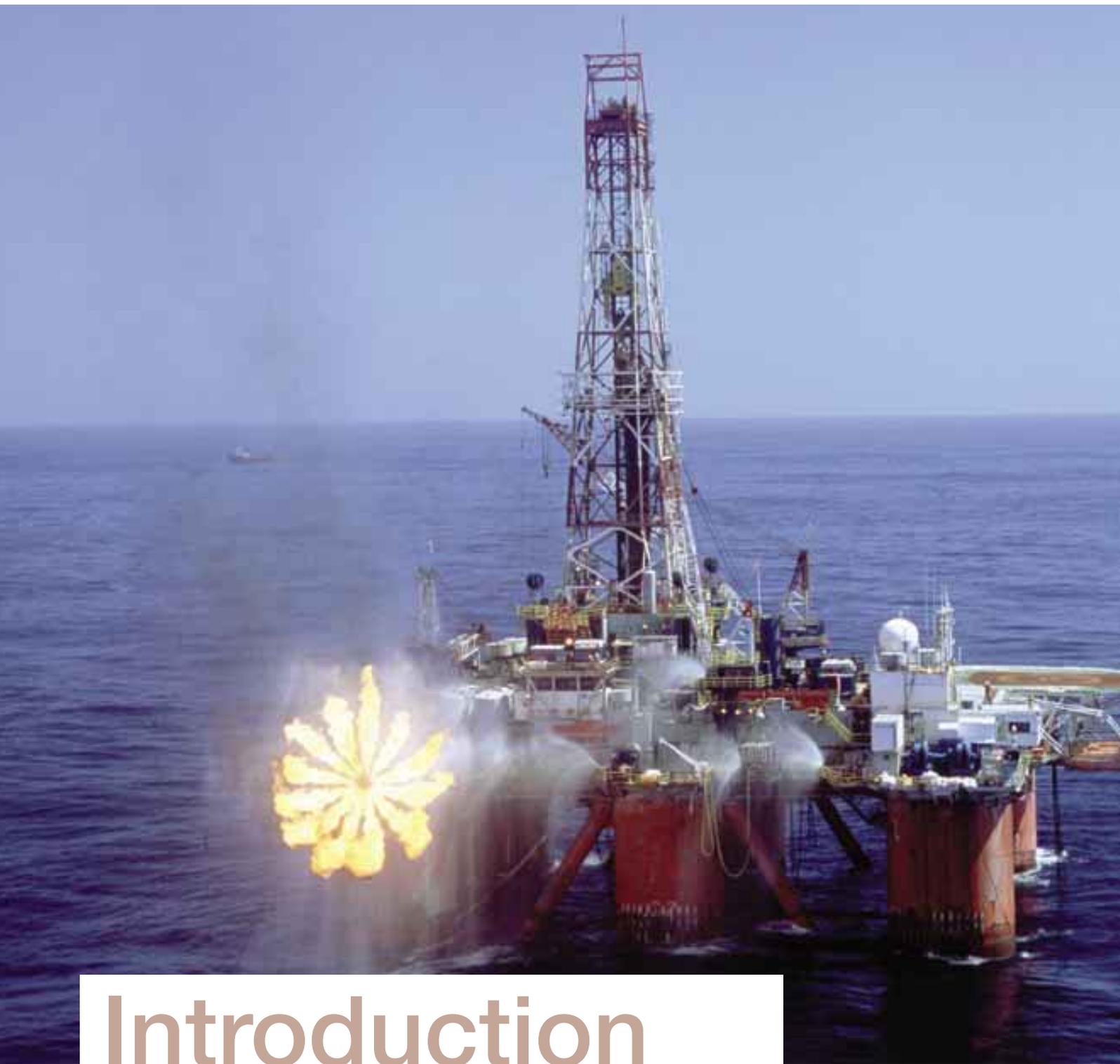
SK에너지는 기업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는 물론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이해관계자의 행복과 나아가 전세계의 더 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7월

대표이사 | 부회장 **신헌철**

Heon Cheul Shin





Introduction

‘고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온 SK에너지가
세계 무대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오겠습니다.

SK에너지는
‘행복에너지’를 나눕니다